

#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5. 3.(수)

## □ 경남 기사

- 마산 하마전마을 주민 “집 앞 묘지 결산반대” (경남신문)
  - 지역 종중, 지난 2월 자연 장지 허가
- 외국인 혐오 발언 사과, 거제시의회 매듭 수순 (도민일보)
  - 양태석 시의원 “신중치 못했다”

홍 보 담 당 관 실

##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기자 고발, 언론 재갈 물리기”

경울기자협회, 성명서 내고 비판  
재발 방지 약속·의장 등 사과 촉구

속보= 의령군의회 ‘패딩점퍼 사건’을 취재하던 의령군의회 출입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의원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의령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경남울산기자협회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비판했다.(4월 27일 5면)

경남울산기자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의령군의회가 ‘패딩점퍼 사건’을 취재 보도한 기자를 고발했다가 뒤늦게 취재했지만 패딩점퍼 사건에 대한 반성은커녕 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김 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 모두 사건 당사자이고, 자신들의 치부를 보도한 언론에 고발이라는 황당한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회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조운제 경남울산기자협회장, 남석형 경남도민일보지회장 등 3명은 이날 낮 의령군의회를 향의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김 의장은 기자들이 의원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지난달 29일 취재했다. 기자들을 고발한 데에는 김창호 의령군의원원의 ‘패딩점퍼 제공’ 사건이 발단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순 지인에게서 받은 돈 500만원으로 군의원 10명과 사무과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패딩점퍼를 사줄 것을 군의회 A 사무관에게 지시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A 사무관은 부하 직원에게 패딩점퍼를 사도록 지시해 총 47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25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도영진 기자

< 정보과 통보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하마전 마을 주민들이 2일 마산합포구청 앞에서 사설 자연장지 설치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 마산 하마전마을 주민 “집 앞 묘지 결사반대”

지역 종중, 지난 2월 자연 장지 허가 시 “절차 검토 중… 주민 협의할 것”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한 마을에 자연 장지가 조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구산면 하마전마을 주민 50여명은 2일 마산합포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지 허가를 내어 준 창원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 생존을 위협하는 묘지 허가를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원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마산 지역 한 종중은 구산면 마전리 일대에

1127㎡, 18단 규모 자연 장지 설치를 신청해 지난 2월 허가를 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조성지와 일반 주택까지 40~50m 거리에 불과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주석 하마전마을 이장은 “창원시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동의 과정을 일절 거치지 않았다”며 “50구 정도 안장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 결국은 종중의 공동묘지가 주민들 집 바로 앞에 들어서는 것”이라며 “허가된 구역에는 소나무가 숲을 이뤘는데 묘지 조성 때문에 나무들이 상당수 베어져 토사로 인한 침수마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은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지난달 27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행정 내부적으로 허가 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라며 “공사 재개나 허가 취소에 상관없이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중은 소유지 입구를 막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종중 관계자는 2일 “구청과 마을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일부 강경한 주민들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고, 종중 소유지 입구를 불법으로 막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 정보과 통보 >



## “농민 의견 수렴 없는 농지법 재개정 규탄”

도내 농민단체, 도의회 건의안 비판  
“농지 소유 규제 완화 맨 투기 유발”

경남지역 농민들이 경남도의회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채택을 비판했다. 이해 당사자인 농민 의견 수렴도 없고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은 지난 2021년 LH 일부 직원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됐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도내 농민단체 회원들이 2일 도의회 앞에서 ‘농지소유 규제완화 촉구 건의안’ 가결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을 대표 발의한 장병국 도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이 힘들어지면서 농지를 소유한 지역민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등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됐다. 이는 곧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켜 국토 균형발전에 심대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농민 단체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LH 사태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단속을 벌였는데, 투기 유형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접 농사를 지을 계획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 (27.8%)으로 가장 많았다”며 “도의회 건의대로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시키면 제2, 제3의 LH 사태가 반드시 일어날 것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김태형 기자

< 정보과 통보 >

## 창원 급식노동자 건강조례 주민발의 추진

주민대회조직위 제정운동 나서  
7월까지 5810명 청구 서명 목표

창원지역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을 창원시가 챙기도록 명시한 조례가 주민발의로 추진된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급식소 노동자 건강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창원시장이 책임지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매년 종사자 건강증진 계획 수립 △건강증진 계획 이행 여부·추진실적 점검·평가 △환기시설과 배기시설 등 노동 여건 개선 사업 추진 등이다.

조직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 오는 7월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발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청구권자 수 이상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창원시는 유권자의 150분의 1 이상인 5810명(2023년 기준) 이상을 명단에 채워야 한다. 주민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는 창원시의회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조직위원회는 교육부가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의지는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학교뿐 아니라 공공기관, 병원, 공장,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만큼 더 광범위하게 노동자 안전을 살필 행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창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2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급식소 종사자 실태파악과 노동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14년간 학교 급식노동자로 일한 정은영 씨는 “급식소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며 “동료가 폐결절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태로 계속 일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돼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은영 진보당 마산지역위원장은

경남도와 창원시에 집단급식소 노동여건 실태조사,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경남도는 지자체 최초로 도청 소속 조리종사자 93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급식소 환기장치 정밀진단 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 csh@idomin.com



# “항강취수장 반대” 거창군민 세종서 삭발식

환경부 찾아 범군민 쫓기대회  
범대위 “사업 철회까지 투쟁”

환경부의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과 관련, 거창군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거창군 항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반대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범대위(공동위원장 신재화, 송강훈)는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거창군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 반대 범군민 쫓기대회’를 개최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이날 쫓기대회는 지난 3월 31일 범대위 실무추진단의 환경부 항의 방문과 환경부에 거창군을 피해 영향지역 및 민관협의체에 포함하고 안개피해 조사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불응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쫓기대회에는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 90여 명과 거창군 사회·농업단체 회원 160여 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해 거창군민의 생



환경부의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과 관련, 거창군 범대위의 반대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세종시에서 신재화(왼쪽), 송강훈 공동위원장이 항강취수장 설치 반대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는 모습.

존권을 위협하는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재화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본류 수질을 포기하고 황강지류로 취수원을 변경하는

업이 철회될 때까지 6만 거창군민들과 함께 강경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범대위는 이날 결의문 낭독에서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반대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에 따른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지역산업 피해 발생 우려 △거창군 배제에 대한 영향지역 포함 요구 등의 내용으로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도 범대위의 쫓기대회 출발 집결지에서 “항강광역취수장 설치사업은 거창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군민의 동의 없는 사업 추진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환경부에서는 거창군민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기를 기대한다”고 힘을 보탰다.

향후 거창군은 환경부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황강 주변의 지질조사와 착정공사 이후 전체적인 취수 가능량은 12월께 도출될 예정으로 거창군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를 통해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구기자

사업으로 환경부의 수질관리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하류 주민의 상생이란 허울 좋은 포장으로 상류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

< 참고기사 >

## 慶南日報

2023년 5월 3일 수요일 004면 사회

### 진주경찰서, 음주운전·스쿨존 특별단속

진주경찰서는 스쿨존의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진주지역 스쿨존 중에서도 법규위반이 빈번하다는 주요 민원 장소에서 교통경찰과 기동대가 합동 현장 단속을 실시, 음주수치미달 1건, 자동차관리법위반 2건, 스쿨존법규위반 23건을 적발했다.

조용래 교통관리계장은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속적인 스쿨존 내 단속과 시설 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 참고기사 >

## ‘창원 간첩단’ 재판, 서울서 계속

### 관할이전 신청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황모(60)씨 등 4명이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3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에 창원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줄곧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4명 중 1명만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았는데도 4명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의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관할 문제를 들고나왔다고 이를 반대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현 소재지 등을 이유로 이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고법에 정식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이전 결정 권한은 2심 법원에 있다.

2심 법원이 이전 신청을 기각했을 때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만큼 이들 피고인은 결국 서울에서 재판받게 됐다. 한정환

< 참고기사 >



## 경남도민일보

2023년 5월 3일 수요일 014면 사람들



### 우문영 사천경찰서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우문영 사천경찰서장이 환경부 주관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약속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영호 기자

< 참고기사 >

## 경남도민일보

2023년 5월 3일 수요일 014면 사람들



### 밀양교육지원청-밀양경찰서 업무협약

밀양교육지원청이 지난 1일 밀양경찰서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과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일균 기자

< 참고기사 >

## 경남신문

2023년 5월 3일 수요일 013면 사람



### 남해경찰서, 망운산서 등산로 안전점검·범죄예방 활동

남해경찰서(서장 김용관)는 봄철 산행기를 맞아 지난달 27일 망운산(786m) 등산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여성 등산객 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진단'을 했다.

경찰은 망운산을 찾은 등산객을 상대로 등산로상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단독 산행 금지, 긴급 상황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했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이번 등산로 점검을 통해 범죄취약지역 및 불안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문 기자

< 참고기사 >

# 외국인 혐오 발언 사과 거제시의회 매듭 수순

양태석 시의원 “신중치 못했다”  
의회 ‘재발 방지 노력’ 그칠 듯

양태석(국민의힘·가) 거제시의원이 외국인 혐오 발언과 관련해 사과했다. 시의회는 양 의원 징계 없이 논란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다.

▶ 2일 자 4면 보도

양 시의원은 2일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편하 발언에 대한 사과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등 관계자들을 향해 신중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표현 방식에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일로 상처를 드린 부분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제시 관광 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의도치 않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말했다.

양 시의원은 통화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다 과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의회는 양 시의원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노력을 하는 선에서 이번 논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부원(국민의힘·다) 거제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으로서 (양 의원을) 많이 질책했다”며 “양 의원이 사과문을 내고 9일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원 전체가 이 같은 사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재발 방지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봤자 사과밖에 더 있겠나”라며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양 시의원은 지난달 20일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양 시의원은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선박 검사관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초선이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 참고기사 >



## 5월 축제, 안전이 최우선이다

가정의 달이자 축제의 달인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아 경남 도내 곳곳에서 정성 들여 준비한 축제인 봄 나들이객 맞이에 들어갔다. 끝 모를 것 같았던 코로나19로 그간 중단됐던 축제가 이달 들어 도내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일상 회복에 따라 축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민은 4년 만에 축제장을 찾아 쌓인 스트레스를 풀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장사를 못했던 상인들도 축제를 통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29일 ‘산청·합천 황매산 철쭉제’를 시작으로 하동세계차엑스포, 진주 눈개제 등 도내 17개 시군에서 20여 개의 축제가 열린다. 어린이날 잔치 등 시군별로 축제와 행사가 줄을 잇는다. 지역 축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관광은 물론이고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축제는 적은 예산 투입으로 경제적·비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도 지역 마케팅의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역 브랜딩으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의식이다. 축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첫째도 안전, 둘

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행정당국이 만반의 대책을 세웠겠지만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때 안전사고의 개연성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참가자들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최측의 안전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다. 관람객들은 경찰, 지자체 행사 진행요원의 권고에 잘 따라야 할 것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도로를 마비시키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며 안전수칙을 무시한다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된다.

사전에 위험요소 파악에 어려움도 있지만 국가, 지자체가 그 안전관리 대비의 선제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태원 참사의 아픈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주차문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지자체, 경찰은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으나 자칫 재유행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참가자 스스로가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쪼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전한 축제가 되길 기원한다.



## 오늘의 날씨

### 일교차감기 조심하세요

3일 부울경 일교차 큰 하루.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게  
거나 조금 높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5월 3일 (음 3월 14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90	60	50	40	7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흐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음/달짐
	05:32 19:10		16:43 04:09

###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6:55 19:24	00:44 12:53
인천	03:23 15:36	09:37 21:55
포항	02:32 15:06	08:39 21:21
통영	07:26 19:55	01:16 13:29

###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파고
남해서부	남동-남	6-9	0.5~1
남해동부	남-남서	2-6	0.5~1
동해남부	남-남서	3-8	0.5~1
동해중부	남서-서	5-8	0.5~1
서해중부	남동-남	5-10	0.5~1.5
서해남부	남동-남	6-9	0.5~1

### 주간날씨

	4 (木)	5 (金)	6 (土)
부산	☀️ 15~20	☁️ 17~21	☀️ 16~20
울산	☀️ 13~21	☁️ 16~21	☀️ 17~18
진주	☀️ 12~19	☁️ 16~21	☀️ 16~21
김해	☀️ 13~21	☁️ 16~22	☀️ 16~22
창원	☀️ 13~19	☁️ 16~22	☀️ 16~20
통영	☀️ 14~19	☁️ 16~20	☀️ 15~20
대구	☀️ 14~21	☁️ 16~22	☀️ 18~22
세종	☀️ 14~22	☁️ 17~22	☁️ 16~22
서울	☀️ 15~23	☁️ 16~21	☁️ 15~21
제주	☀️ 17~24	☁️ 19~25	☀️ 18~21